

리후 전쟁과 이슬람 민족주의

申 載 輜*

〈목

차〉

- | | |
|---------------------------|-----------------------|
| I. 서론 | IV. 리후 전쟁과 프랑스 정치 |
| II. 리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 | V. Abd el Krim과 아랍 민족 |
| III.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로코
침투사 | 주의 |

최근 우리는 근 50년의 오랜 숙원을 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극적인 화해를 하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 보았다.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진 중동에서 조차 평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의 대 전기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16세기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시작된 식민지 시대는 19세기에 활발한 전성기를 거친 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여세가 수그러들었다. 미국의 월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歐洲 식민국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당시 식민지제국은 비로서 본격적으로 독립이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 서북단에 위치한 리후(Rif)지역의 회교도들은 Abd el Krim의 영도하에 회교사상 처음으로 독립전쟁(1921-1926년)을 일으켰다. 당시의 모로코 왕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분할 점령하에 있었다. 북부 모로코의 일부인 이 지역은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기타 지역은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다.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마그레브의 일단이자 회교도라는 지역적·종교적 특성에서 발생된 연대감 속에서, 이 리후 전쟁은 회교권에서 처음 발생한 독립운동이자 회교권 단결의 원초적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컸다. 막강한 식민국이던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항한 이 조그만 항쟁은 당시로서는 역부족이었으며, 겨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던 이 시기에 식민국 내부에서 이들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여론이 형

*프랑스 Paris第1大學校 政治制度比較分析研究所 研究員, 정치학.

성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기에 성공을 할 수도, 세계적으로 더 잘 알려질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화해의 대 전기를 맞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 전쟁에 관한 당시 프랑스의 정치 여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67년 전 리후라는 식민지 일부에서 일어났던 아랍민족의 독립항쟁을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화해를 바라보는 눈은 당연히 전혀 달라졌다. 양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각 피식민 민족들은 자체 독립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리후 전쟁을 효시로 대두되기 시작한汎아랍주의 내지는 아랍 국가들간의 단결을 호소하는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45년 이후 아랍 국가들이 독립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이라는 종교가 다른 국가가 탄생되면서, 전체 아랍권의 결속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유태-아랍 양 민족의 반목은 심해졌다. 역사적 복합성과 아랍제국의 지도층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기에, 이 아랍주의가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으나, 이슬람교도 상호간의 유대의식은 고조되었다. 전체 이슬람세계는 일치 단결하여 유태교도들을 문제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축출하고자 했으며, 종교가 다른 양측은 수차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최근까지 각종 폭력과 무력 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중동지역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였던 것이다.

I. 서론

아랍 민족주의의 효시로 간주할 수 있는 리후 전쟁은 이미 말한대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에 일어난 전 세계 피식민지 민족의 각성의 일환이었다. 歐洲에서 벌어진 이 대전은 서구라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전쟁이 남긴 서구 제국의 참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서구의 도덕적 우월성이 실추되었다. 여기에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반제국주의(anti-colonialism)를 들고 나서서 자국의 근본 정책으로 천명하였다. 미국에서는 윌슨대통령이 1918년 1월 18일 미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전후 문제에 관한 “14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이 중 하나가 “민족 자결권”으로서, 피식민지 민족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게되는 유명한 조항이다. 당시의 식민대국이던 프랑스와 영국은 이 조항을 물론 축소 해석함으로써, 이 조항이 오직 歐洲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조항을 보다 광의로 보았다. 소련은 이 反식민주의를 전혀 다른 면으로 이용하였다. 공산주의 체제를 갖 시작한 볼셰비키(Bolshevist)들은 “피압박민족”을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실제로는 이 독립운동을 공산주의 세계혁명으로 몰

고 가려고 하였다.

과연 1919년 초부터, 식민국 본토에서는 식민지의 막대한 경제적 유용성을 새삼느끼게 된 반면, 세계 도처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한국의 3·1운동, 중국의 5·4운동, 필리핀의 독립항쟁, 간디의 영도하에 일어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인도 편집 지방에서의 회교도들의 폭동 등이 일어났다. 중동에서도, 터키의 케말파샤가 국가개혁을 기도하였고, 이라크·시리아·팔레스타인 등이 영국 프랑스의 신탁통치를 반대하여 웅기하였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인들이 민족혁명을 시도했고, 리비아에서는 게릴라가 출현하였고, 알제리·튀니지에서는 최초의 민족운동가들이 생겼으며, 모로코에서는 리후 전쟁이 발발하였다. 특히 이 리후 전쟁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서汎아랍 세계의 각성의 상징이며, 반제국주의 전쟁의 효시였다.

처음에는 모로코에서 역사적으로 수 없이 일어났던 반항적인 부족장들의 왕권에 대한 도전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이 리후지역의 봉기는, 이후 독립국가임을 선포함으로써, 그 식민 모국에 대한 반항이 현대적 양상을 띠었다는 면에서 식민 열강을 놀라게 하였다. Abd el Krim이 “리후 공화국”을 세우고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시도한 사실과 계속되는 리후軍의 승전 소식 등은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아랍 세계 전체로부터 축하받았다. 당시 이를 진압하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로코 총독부가 발표한 바와는 달리, 이 리후인들의 저항은 단순한 외국인 배척운동이나 국왕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해온 한 민족이 외국인의 총독부 설치라는 기정 사실을 힘으로 맞서 저지하려던 전쟁이었다. 자국에 대한 정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아직까지도 무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던 시기의 저항이었다.

마그레브 끝에 위치한 한 고립된 민족의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당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려던 이 리후 전쟁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저항 중 가장 성공한 것이었다. 같은 프랑스의 신탁통치 하에 있던 시리아에서 일어난 봉기는 비슷한 예이다. 1920년부터 중동의 모슬렘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점령에 강력히 반항하였다. 다마스왕국의 모슬렘들은 프랑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Cilicia의 터키인들을 진압하고자 하는 프랑스군이 사용하던 Rayak-Alep 철도를 끊어버렸다. 1920년 7월, 시리아와 시리시아의 총독인 프랑스의 쥬허드(Gouraud) 장군은 Alep 지방을 점령한 후, 격전 끝에 시리아의 수도에 진입하였다. 1925년에는 Druze 산악지대에서 폭동이 일어나 다마스로 확대된 후, 리후 전쟁과 같이 1926년에 진압되었다.

리후 전쟁 초기(1921-1924년)는 모로코 북부에서 스페인과 Abd el Krim

군의 싸움이었고, 이 동안 프랑스는 남부의 자국 보호령 평정에만 주력하다가, 후기(1925~1926년)인 1925년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이 합동하여 진압을 마쳤다. 이로써 프랑스는 모로코와 시리아 양국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렀다. 4년에 걸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기력이 소진된 프랑스는 1911년에 독일에게 양도한 식민지를 탈환하고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루르 지방을 점령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전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1924년 선거에서 야당인 좌파 연합이 승리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미 “리후 전쟁과 프랑스 정치활동”이라는 논문에서 이 전쟁에 대한 프랑스 여론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동시에 이 전쟁의 주도자인 Abd el Krim과 리후의 해방전쟁이 아랍권의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한 바 있다. Abd el Krim이 다만 19세기에 자주 나타났던 부족장 중의 하나인지, 즉 알제리에서 對프랑스 항쟁을 하다가 프랑스에게 회유되는 Abd el Kader의 후예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세기의 첫 민족주의자인지, 달리 말하여 Ben Barka의 선구자인지를 살펴보았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조직된 리후인들의 군대가 스페인과 프랑스의 현대적 군대를 상대로 5년간이나 싸웠고, 한동안 스페인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세계는 경악을 금하지 못하였다. 원주민의 소규모 반항으로 간주되다가 프랑스 정치계를 뒤흔든 큰 사건으로 발전된 이 Abd el Krim의 봉기는 무단통치 대신에 순화에 의한 평정을 원칙으로 하던 리오떼 프랑스총독의 “Lyautéism”을 종식시키게 하였다. 따라서 이 전쟁을 더 고찰하기 위해서는, 리후의 봉기가 일어난 이유와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부족들의 군대가 어떻게 15만명이나 되는 스페인군에게 이길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리후軍이 프랑스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제국을 위협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리의 목적은 간략히 이 논문을 소개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최근의 자료와 함께 당시 식민지제국의 하나였던 프랑스 정치계가 식민지 전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일별한 후, 20세기 민족주의자의 선구자인 Abd el Krim을 중심으로 최근의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아랍 민족주의의 연계성을 간략히 연구하는 것이다.

위의 논문은 원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리후 전쟁의 초기, 즉 리후-스페인 전쟁과 이에 대한 프랑스 정치계의 무관심을 다루었다. 서론에서 리후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1절에서 어떻게 스페인이 계속 패배했는지와 프랑스가 이와같은 스페인의 실패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고찰하였다. 제2절에서는 리후 공화국의 창설과 이에 대한 프랑스의 역시 관망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프랑스의 참전과 이에 대한 프랑스 정치여론의 향방을 연구하였다. 제1절은 리요떼 총독의 정책과 그가 퇴임한 뒤의 프랑스의 참전을 고찰하였고, 제2절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국내 정치여론과 의회에 대해 취한 조처들을 살펴보았다. 좌파연합(Cartel) 정부는 야당인 우파 일부의 지원하에 리후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다. 명총독으로 알려진 리요떼 장군과 정부가 현지로 급파한 특사인 빠뗄(Pétain) 장군간에 이념투쟁이 벌어지고, 결국 리요떼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대체로 프랑스의 여론은 우파가 주장하는 적극 정복론, 사회당이 내세운 전쟁의 평화적 해결론, 공산당이 요구한 무조건 철수론 등 세가지 논리로 분산되어 있었다. 의회에서는 중도파와 우파가 연합하고, 사회당은 좌파연합에서 탈퇴하였다.

제3장에서는 프랑스 좌파가 이 식민지 전쟁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절에서는 사회당이 리후 전쟁과 식민주의에 대해 취한 태도를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공산당의 전쟁 반대 양상을 다루었다. 사회당은 초기에는 정부 지원의 태도를 취했으나 결국은 온건한 반대로 선회하게 되었다. 반면, 창설된 지 얼마 안되는 공산당으로서는 리후 전쟁이 처음 맞는 대외투쟁의 큰 쟁점이기에 이를 맹렬히 반대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 Abd el Krim이 이끈 리후 전쟁이 Pan-arabism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찰하면서 이 연구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고찰하고자 한다: ① 리후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 ②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로코 침투사, ③ 리후 전쟁과 프랑스 정치활동, ④ Abd el Krim과 아랍 민족주의.

Ⅱ. 리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단에 위치한 모로코 왕국의 북쪽은 지중해,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사하라사막, 동쪽은 알제리와 접해 있다. 총 면적이 458,730 km²인 국토에, 인구가 약 403만명이었다(현재의 1/4). 원주민의 98%가 베르베르(Berbère)인과 아랍인이다(Despouy, 1964: 182) 모로코는 공존과 조화의 나라이다. 우선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이 공존한다. 지형으로 보면 산악과 평지가, 기후는 지중해 연안의 온화한 기후와 사하라사막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겸비하고 있다.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의 구분은 종족보다는 언어이다. 베르베르의 땅에 7-11세기간에 걸쳐서 아랍인들이 침입한 뒤, 수세기가 지나면서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아직도 베르베르어를 쓰는 인구가 40%이다. 이렇게 조화와 다

양성을 아울러 갖고 있는 모로코는 동시에 지중해, 이슬람, 사하라권에 속하고 있다. 모로코, 특히 리후지역은, 지중해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스페인에서 14km밖에 안되는 작은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가면 되니, 기후도 지중해 북안의 여타 歐洲 국가나 같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럽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모로코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유럽 또는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연결지 역할을 해왔다. 인간과 문명이 오고 간 것이다: 모슬렘족의 유럽 공략, Ibero-moroccan 왕국의 설립, 스페인의 "Reconquista". 모로코는 또한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이다. 서쪽 끝이란 의미(Maroc, 1948: 5)의 마그레브(Maghreb)에 속하는 모로코·알제리·튀니지 3국은 같은 지리적 인종적 환경 때문에, 특히 아랍-베르베르 문명 때문에 오랫동안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다.

뻬쓰(Fès)조약에 의거하여 모로코의 북부 일부를 스페인이 점령하고, 스페인 지역의 20배나 되는 나머지를 프랑스가 지배하였다. 이 당시 모로코인의 수도 프랑스 지역에는 350만명, 스페인 지역은 78만명에 불과하였다. 이 스페인 지역에 리후지방의 대부분이 포함되었고, 리후인의 2/3가 거주하였다. 원래 리후산맥에서 대서양 쪽으로 흘러내린 Jbala지역과 지중해쪽으로 흘러내린 쪽을 구분하여, 후자의 산악지대만을 리후로 호칭하였으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리후의 중앙 및 동부 산악지대, 지중해로 내려간 평지, 서쪽으로 대서양 쪽 평지를 통칭하게 되었다. 면적은 약 3만km²이다. 리후에는 100개 정도의 부족이 있으나 크게 나누면 3개의 분파가 존재한다: Zénète계(중-동부 리후), Ghomara계(지중해쪽으로 내려가는 리후), Senhadja계(대서양쪽 서부 리후). 앞의 두 계열은 이슬람화가 덜 되었고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는 반면, 마지막 계열인 서부의 Jbala 부족은 이슬람화되었으며 언어도 아랍어이다. 리후의 산악은 2,000m를 넘지 않으나 아주 가파르고 봉우리들이 동떨어진 섬과 같아서 자연적 요새를 형성하고 있으며 진입하기에 힘이 들고 상호 연결이 어렵다.

중앙 정부 체제하에 “왕정에 대한 취향”(Despois, 1964: 141)을 갖고 있는 아랍인들과는 달리, 베르베르인들은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섭이 드문 독자적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보수적 성격과 독립심이 강하여 외부로부터의 권위를 부인할 뿐더러, 배타적인 기질 때문에, 아랍 침략 이래로 1934년에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완전 평정 되기까지, 모로코는 “중앙 정부에 순응하는 지역”(Bled el-Makhzen)과 “반항지역”, 즉 술탄(Sultan)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Bled es-Siba)로 양분되어 왔다. 리후의 산악지대는 물론 후자에 속하였다.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리후인들의 사회구성상, 몇몇 가정으로 구성된 씨족이 사회의 첫 조직이다. 격리된 부락이나 부락의 한 부위에 자리하는 이 씨족은 또한 최소 경제단위이기도 하다. 몇몇 씨족이 모이는 천막촌(Douar)이 그 다음 사회 단위이다. 경제단위인 동시에, 원로회의(Jimaa)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행정 및 정치를 운영한다. 이들이 모여서 최종 단위인 부족을 형성한다. 베르베르인들에게는 이것이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원로 회의는 매년 의장(Amghar 또는 Cheikh)을 선출하며, 의장의 지휘하에 모든 일을 관습에 따라 결정·집행하고 판결한다. 이외에 중대한 위협이 닥치면 부족들의 임시 연합체가 생긴다. 이 연합(Confederation)은 전쟁을 총 지휘할 수장을 선출하는데, 위기가 끝나면 이 연합체와 수장직은 없어지는게 원칙이나, 수장의 외교적 수완에 따라 진정한 총수로 군림할 수도 있다(Despois, 1964: 144). Abd el Krim이 바로 이 경우였다.

Ⅲ.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로코 침투사

기원 전 12세기에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알려진 모로코는 710년 이래로 리후지역에 모슬렘 왕국이 처음 세워진 뒤, 19세기 공업화된 유럽이 식민지나 해외 시장을 물색하고,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한 후 欧洲 제국이 서부 지중해 지역을 주시하며, 지중해 항로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상하는 시점에서 아프리카에 드물게 남아있던 독립국이었다. 欧洲 제국 중에서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두 나라가 모로코를 탐냈다. 프랑스는 알제리 점령 이후 인접국인 모로코마저 차지하여 자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제국의 동질성을 구성할 욕심에서, 스페인은 지중해 연안의 기존 요새지(Ceuta, Melilla)를 근거로 이 땅을 재정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권리”를 내세우면서 침략의 기회를 노렸다.

프랑스의 알제리 침략시 알제리의 태수(Emir) Abd el Kader는 모로코로 피신하는데, 당시 모로코 왕 Moulay Abderrahmane(1822-1859년)이 이를 보호해 주었다는 구실을 가지고 이 나라 침략에 성공한다. Isly 전투(1844·8·14)에서의 모로코군에 대한 대승, Tanger에 대한 폭격, Mogador 점령 이후, 프랑스의 루이 필립(Louis-Philippe) 정부는 Tanger 협정(1844·9)으로 모로코 국왕이 더 이상 알제리 태수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모로코의 일부를 점령하였다. 수 개월 후, 양국은 프랑스가 점령하는 지역 내의 부족에 관한 권한과 범법자 추적권을 규정하는 Lalla Marhnia 조약(1845·5)을 체결하였다. 조문이 애매한 이 조약은 이후 프랑스의 어떠한 개입도 가능하게 하였다.

스페인은 1859-1860년에 벌린 단기전에서 승리함으로써 Tetouan을 점령하고, 1861년에는 모로코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추가로 Santa Cruz Pequena를 빼앗았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모로코 점령이 시작되자, 모로코의 경제적 지배를 계획하던 영국은 프랑스의 불법 점령과 Moulouya까지 국경을 확장한 것을 반대하고, 동시에 스페인의 Tetouan 강점에 항의하였다. 이로써 이 나라를 중심으로 欧洲 제국의 이해 충돌이 개시되었고, 모로코 문제의 국제화가 시작되었다.

모로코 왕 Moulay Hassan(1873-1894년)은 국가의 현대화와 더불어 자국을 둘러싼 欧洲제국간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팽창 일로인 欧洲 제국의 야심에서 독립을 고수하려고, 당시 모로코에 주재하던 欧洲 제국의 대표들을 초치하여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Madrid 회의(1880 · 5 · 19-7 · 3). 왕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 회의는 오히려 회의에 참가한 欧洲 제국의 권익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 회의 후, 프랑스는 1900년부터 1912년까지 소위 "모로코 위기"를 일련의 외교적 교섭의 성공으로 이끈 뒤에 스페인과 함께 결국 모로코를 식민지화하였다.

우선, 프랑스는 모로코에 별다른 이익 기반이 없던 이태리와 협상(1902 · 11 · 1)하여, 이태리는 모로코가 프랑스의 영향권임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프랑스는 역시 북아프리카의 Tripoli 지역을 이태리의 영향권으로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영국과 "화친 조약"(1904 · 4 · 8)을 런던에서 체결하여, 영국은 모로코에서 프랑스가 자의적으로 활동함을 인정하고, 프랑스는 이집트를 영국의 영향권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모로코 내에서 영국의 경제적 특전을 인정하였다. 단, 이 조약에서 영국의 요구로 지브랄타의 건너편인 북부 모로코는 스페인의 영향권으로 규정하였다.

이 화친조약은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협상을 수월하게 하였다. 1902년부터 시작된 양국간의 회담은, 1904년 10월 3일의 비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스페인은 위의 영·불 화친 조약에 가입한 뒤, 1905년 9월 1일의 또 다른 비밀협약에 의해 모로코의 일부를 점령한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 협약, 특히 영·불 화친조약은 모로코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Moulay Hassan에 이은 Abd el-Aziz(1894-1908년)의 비합법적 등극 이후 국내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신임 술탄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프랑스의 공식 개입이 시작됨과 동시에,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어온 유럽제국의 對모로코 균형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바뀌게 되었다.

프랑스가 이끌어온 각종 국제협약에서 제외되었던 독일은 1904년 말부터 프랑스가 체결한 협약들을 부인하고, 술탄에게 프랑스의 압력에 저항하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모로코사태에 적극 개입할 것을 공표하였다. 빌헬름 2세의 요구로 알제시라(Algésiras) 회의(1906·1·16-4·7)가 열렸으나, 독일의 의사에 반해, 비록 서명국들의 보장 하에 술탄이 주권을 보유하나,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특권이 주어졌다. 모로코에서 각국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모로코의 재정정책에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회의는 결과적으로 모로코의 경제적 재정적 대외 예속을 의미하며, “사실상 모로코 독립의 종식”(Terrasse, 1949-1950: 330)이었다. 이 회의의 의정서를 근거로,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로코 정부를 개편함과 동시에 무력점거를 시작하였다. 무력평정이 개시되자, 도처에서 왕위 계승전과 외국군에 반항하는 성전이 일어났다. 그것들은 Bou Hamara(동부), Hamou(중부 아트拉斯), Raisouli(리후), 특히 Moulay Hafid(마라케슈) 등이다. 왕의 친동생인 Moulay Hafid(1908-1912년)가 모든 반항 세력을 진압하고 술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프랑스-스페인의 침략 저지에는 무력하여, 얼마 후 민중의 분노를 사고, 결국은 모로코를 침략자들에게 넘겨주는 왕이 되었다.

알제시라 회의 후 무력을 앞세운 침략자들의 “평화적 침투”가 시작되자, Casablanca 외곽, Chaouia 평원, 동부지역, Melilla 외곽이 점령되고, 1907년에는 이 대도시가 아예 점령되었다. 매년 모로코는 궁지로 몰렸다. 한 때 술탄을 지원하던 독일마저, 처음에는 이 침투가 알제시라 협정 위반임을 항의하였으나, 1909년에 프랑스와 경제협력조약을 맺었다(2월 8일). 한편, Moulay Hafid는 양 침략국에게 신규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1910년)하였지만 오히려 보상금만 짚어지게 되었다. 1911년 반군에 의해 빼쓰에 감금된 술탄을 구해준 대가로 프랑스는 Meknès와 빼쓰를, 스페인은 Larache와 El Ksar Kébir를 차지하였다. 독일은 또 다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아가디르(Agadir)에 군함을 보내 “아가디르 위기”를 조성하였으나, 프랑스는 독일에게 자국령인 콩고의 일부($275,000\text{km}^2$)를 주고, 독일은 프랑스의 모로코 식민지화에 동의하였다. 모든 방해 요소가 제거된 것이었다.

이윽고 1912년에 Moulay Hafid는 프랑스와는 3월 30일, 스페인과는 11월 27일 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Rabat와 Tetouan에 양국의 총독부가 설치되고, 독립국 모로코는 이종 식민지가 되었다. 초대 총독으로 프랑스의 리요페 장군, 스페인의 Felipe Alfau 장군이 임명되었다. Moulay Hafid는 양위(7월)하였다. 보호령의 첫 국왕 Moulay Youssef(1912-1927년)는 다만 상징적 군주로서 종교의 최고 지도자(Iman)이며 신자들의 총사령(Caliph)으

로 정신적 권한만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초대 총독 겸 모로코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인 리요떼 장군은 리후 전쟁 발발 후 경질되기까지 온건 평정법으로 점령지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제1단계(1912-1914년)에는 소위 “유용한 모로코”라고 칭하는 대도시와 평원을 평정하였고, 제2단계(1914-1920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20개 대대를 본국으로 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아트라스 산악지대를 점령하였다. 반면에 제1차 세계대전시에 중립국이었기에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총독은 잦은 교체로 해안지역 일부 점령에 그치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 관할 지역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반항 지역이기도 했으나, 식민국 스페인 자신이 새로운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준비도, 국론의 충화도, 뚜렷한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전을 면하지 못하였다. 평정 목표도 대서양쪽 평원으로 국한되다가, 1921년에 비로서 리후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스페인군은 오히려 Abd el Krim의 리후軍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참패하였다. 리후 전쟁의 발발이었다.

Anoual 전투에서 스페인에게 대승함으로써 명성이 높아가던 Abd el Krim은 1923년 2월에는 “리후 부족 연방공화국(République des tribus confédérées du Rif)”이라는 현대적 국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서부의 대서양 쪽의 Jbala 지역까지 정복하기 위해, 이 신공화국의 대통령은 1924년에 Chechaouen 전투를 일으키고 또 한번 스페인 군을 대파하였다. 이로써 前期 리후 전쟁은 종식되고, 스페인은 아예 모로코에서 철수할 것마저 고려하게 되었다. 대리후의 실력자가 된 Abd el Krim과 그의 “공화국”은 북아프리카 식민제국의 일원화를 계획하는 프랑스에 대한 큰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25년 봄에 리후 남부에서 Abd el Krim의 리후軍과 프랑스군이 충돌하게 되었다. Abd el Krim의 봉기가 스페인과 리후 인들만의 문제이던 전쟁 초기에는 이에 무관심했던 프랑스도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끝이어 이 전쟁은 프랑스 정치계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IV. 리후 전쟁과 프랑스 정치

리후 전쟁의 발발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식민주의자들에 대항한 원주민들이 독립국가를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자기의 북아프리카 식민제국 바로 옆에 이 독립 국가가 생긴 사실은 프랑스에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1924년까지는 수동적 태도를 취하였다.

양차대전 기간, 특히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휴전 이후부터 리

후 전쟁이 끝나는 1926년까지 프랑스의 주요 사태는, 첫째가 1920년 12월 공산당(Communist International 프랑스 지부)의 창립이고, 둘째는 1924년 5월 11일 총선을 거쳐 좌파연합(Cartel des Gauches)이라는 자유주의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특기할 것은 리후 전쟁 前期에, 스페인의 Alphonse XIII 왕이 1921년부터 1924까지 계속 패배할 때에, 프랑스를 움직인 모든 보수적 정부는 스페인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들어섰던 우파(Bloc national) 내각도, 좌파 연합 내각도 Abd el Krim이 부상해 올라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프랑스는 이보다 더 긴급한 다른 관심사, 즉 대전의 직후에 해결해야 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대내적인 문제들은 평화조약의 실시, 복구비의 지불, 과괴된 지역의 재건, 물가 상승, 공공재정의 적자, 화폐가치의 저하 등이었고 (Bonnefous, n.d.: iv), 대외적인 문제는 Damas 정복, 독일 국토의 점령, 프랑스령 모로코의 평정 등이다.

1919년에 창설된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의 정책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모든 식민지 민족의 전쟁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공산당은 리후연합 의장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공산당과 모로코 및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제국과 관계된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프랑스인 거의 모두가 스페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였다. 그러다가 이 전쟁이 프랑스 지역으로 번진 후에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스페인과 리후간에 처음 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리후 이외에서는 Abd el Krim이란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 발발 10일이 되기까지 반항을 영도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서방의 각 신문은 다만 카빌(Kabyle) 인들의 위험한 반항이라고만 보도하였다.

Mohammed ben Ould Abd el Krim은 1882년경 Ajdir에서 태어났다. 출생 배경은 가장 강력하고, 호전적이며, 독립심이 강한 Beni Ouriaghel 부족에 속하는 Ait Khettab 씨족 출신이었다. 그의 부친은 歐洲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Moulay Hassan이 임명한 "caid"로서,⁽¹⁾ 정치적 형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Beni Ouriaghel 부족의 지리적 위치 덕분에 이 Caid는 일찍부터 외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부터 그는 독일의 Mannesmann 그룹과 일해 왔다. 따라서 그는 둘째 아들 (Mhmmmed Abd el Krim)을 스페인으로 보내 광산 기술자가 되게하는 한편, 큰 아들(Mohammed Abd el Krim)에게는 Ajdir, Tetouan, Fès 등지에서 재래식 교육을 칙실히 받게 하였다. 교육 과정을 마친 뒤, Abd el

(1) 판사, 행정단위 책임자, 경찰 책임자를 겸하는 이슬람 공무원.

Krim은 Melilla에 자리를 잡고 신문(Télégramme du Rif) 편집인(1906), 원주민 사무소 비서(1907), Cadi, Chief Cadi(1914), Jordana 장군이 만든 아랍어 아카데미의 베르베르 방언 교사 등의 일을 한 뒤, 신문 발행인이 되었다. 스페인 행정부서에서 일을 한 덕분에 Abd el Krim은 유럽식 행정 및 군사 조직을 배우게 되었고, 아랍 인텔리겐차이면서 서구식 훈련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Jordana 장군의 정책에 반대했던 그의 부친이 스페인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면서, Abd el Krim과 식민주의자들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 총독에 의해 간첩 및 밀수 혐의로 투옥된 후, 석방(1919)과 동시에 스페인 행정조직을 떠나 Ajdir에 머물었다. 1920년부터 부친과 함께 스페인에게 대항하도록 Beni Ouriaghel 부족을 선동하기 시작하다가, 부친 사망 후, 계속 대대적인 봉기를 준비하는 한편, 동생 Mhammed와 숙부 Si Abd el Salem의 도움을 받아 자기 부족(Beni Ouriaghel)의 의장이 되었다. 이윽고 1921년 6월 1일, 리후軍이 Anoual을 점령한 스페인군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前期 리후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위에서 일별한 바와 같이 1923년에는 “리후 공화국”을 세웠다. 다음 해(1924·6)에는 Checaouen의 스페인군을 다시 대파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對스페인 전투에서 대승한 뒤 스페인군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 넣음과 동시에, 서부 리후의 실력자이며 라이벌이던 Raisouli 의장을 제거하는 데에 성공한 Abd el Krim은 大리후의 지도자로 위치를 공고히 한 뒤, 남쪽의 프랑스 지역을 침공 할 수도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 보호령에 대한 총독부 설치 이후, 총독 리요떼 원수(1921년에 승진)는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모로코 주둔군의 상당수를 본국으로 귀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정지를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별다른 사태가 없을 경우, 1923년까지 평정 작전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21년에 리후 전쟁의 발발에 따라 총독은 예상하지 않았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리후의 봉기가 성공할 경우에 나타날 불리한 사태를 우려하여, 리요떼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였다. 스페인을 물리친 후에 Abd el Krim이 프랑스 보호령도 침범할 것을 우려한 리요떼는 프랑스 총독과 접촉하려는 Abd el Krim의 수차에 걸친 시도를 묵살하는 동시에, 수차에 걸쳐 본국 정부에 군사력 증강을 요청하였다. 리요떼는 리후인 도발을 피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1924년 초부터 우파(Bloc national) 정부와 좌파(Cartel des Gauches) 정부에 연속해서 건의하였다. 이 건의서를 통해 리요떼는 정확하게 리후軍의 침공을 예측하였다. 1925년 4월, 리요떼는

Poincaré 수상에게 보낸 서한(1924·2·27)에서 당장은 위협이 없으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보고하였다.

본인의 견해로는 현재 Abd el Krim 족이 언젠가 우리에게 심각한 사태가 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Abd el Krim은 점차 Mustapha Kemal 행세를 합니다. 그의 측근들은 그를 이미 태수(Emir)로, 심지어는 왕으로 대합니다(Hubert-Jacques, 1927: 55).

그러나 평화를 우선적 정강으로 집권한 좌파연합 내각으로서는 새로운 식민지 전쟁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도 불구하고 리요떼는 1923년 말까지의 정책을 바꿔서, 1924년 5월 27일, Ouerrha 북쪽 지역 평정을 개시하였다. 당시 리요떼 총독의 생각에 의하면 Abd el Krim은 “자기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리후에서 이슬람 독립 챔피언 역할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²⁾ 곡창 지대인 이 지역은 스페인-프랑스간의 협약에서 경계선이 불분명했던 지역이었다. Abd el Krim은 프랑스군의 이 지역 점령이 “리후 공화국”的 영토 침범이라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별 저항이 없이 진행된 프랑스군의 진입에 원주민들의 반항이 조금씩 나타나다가, 급기야 1925년 4월 13일 리후인들이 전면적 봉기를 하였다. 1924년 Anoual에서 스페인군을 격파한 뒤의 프랑스 총독부-리후간의 미묘한 관계의 시기가 끝나고, 프랑스-리후 전쟁, 즉 후기 리후 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데는 프랑스-스페인 양군이 합동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이나 걸렸다. 식민지 전쟁으로는 긴 기간이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상외로 전세가 강해지자, 비로소 프랑스 정부는 즉시 병력을 증파하고, 스페인과의 협력을 개시하였으며, 對의회 및 여론 조치를 서둘러 취하였다.

리후 전쟁이 프랑스 정치계에 일으킨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살펴보고, 이 전쟁에 관한 프랑스의 여론 및 의회의 역할을 순서대로 고찰하기로 한다.

1. 프랑스 정부의 對리후 정책

1924부터 1926년까지 집권한 “좌파 연합(Cartel des Gauches)” 내각의 시기에 후기 리후 전쟁이 일어났다. 이 좌파 연합은 1924년 총선에 대비하여 다음 4개의 복합 정파가 구성한 것이었다: “급진 사회당”(Radicaux-

(2) *Depeche n° 302, Rabat: 13 janv. 1924, in Archives dip.—Maroc n° 479, pp. 159, 160.*

socialistes), “통합 사회당”(Socialistes unifiés), “사회주의 공화당”(Républicains socialistes), “급진 좌파”(Gauche radicale). 역사적으로 제3공화국 설립(1870년) 이래, 프랑스는 중도파와 제휴한 좌파가 계속 집권해 오다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선거에서 “우파 연합”(Bloc national)이 “좌파 연합”(Bloc des Gauches)을 이김으로써 처음으로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설치되었던 거국 내각 이후, 1924년 선거에서 패배하기까지 우파 내각이 계속되었으나, 전후 복구의 담보상태, 물가와 세금의 과다한 인상, 공무원 감원, 독일 루르 점령의 실패 등을 이유로 우파가 물러났다. 그러나 이 좌파 연합이 비록 하원에서 절대다수(291표)를 획득하여 내각을 구성하였지만, 이 맴버의 하나인 급진 좌파(41표)는 좌파라기보다는 중도파로서 이 연합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절대 다수 확보가 위태로웠다.

리후 전쟁이 끝나는 1926년에 이 좌파 연합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좌파 연합 내각 집권 2년 간은 당-정 협조도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의 Edouard Herriot 내각(1924·6·15-1925·4·10)과 후기의 Paul Painlevé 및 Aristide Briand 내각(1925·4·17-1926·7·17).

프랑스와 리후간의 첫 접전이 Herriot 내각이 전복(1925·4·10)되고 나서 Painlevé 수상에게 인계되는 과도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의 3인 중 Herriot를 제외한 두사람만이 이 전쟁과 관계되었다. Painlevé, Briand 내각하에서 진행된 리후 전쟁은 네 시기로 구분된다: 리후軍의 공격기(1925·4·13-7월말), 프랑스군의 재정비기간(1925·8-10), 정치 공작기(1925년 10월 이후), Abd el Krim의 항복 및 종전기(1926·5·27).

리요떼 총독의 수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Herriot 정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리후의 회교군들이 프랑스군까지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회교군의 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지연되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교전 초기의 수 개월간, 프랑스군은 계속 패배하였다. Abd el Krim 군은 Fès 이북에 위치한 모든 프랑스 부대의 영향권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프랑스에 순화되었고 협력을 해오던 부족들마저 對프랑스 봉기를 하게 되었고, 큰 도시인 동시에 종교 수도인 Fès 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리요떼 총독의 전보로, 프랑스 정부는 전쟁 발발 다음 날(1925·4·14)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언론은 4월 23일에야 이를 기사화하였다. 중도지 “Le Temps”는 다만 “Abd el Krim 측근의 장교가 이끄는 리후軍이 스페인 지역

과 프랑스 군의 전진기지 중간에 거주하는 프랑스에 순화된 Beni Zéroual 부족을 공격” 하였다고 보도한 데 반해,⁽³⁾ 공산당 기관지인 “L’Humanité”는 이 공격이 “리요떼를 비롯한 군 도당이 리후 공화국을 쳐들어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 총독부에서 꾸민 조작극”이라고 쓰고 있었다.⁽⁴⁾ 분명한 것은, 리후軍의 공격 개시 이후 4개월간을 프랑스군이 계속 쫓김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Painleve 신임 수상은 1925년 5월 4일 자국의 모로코 총독 겸 군사령관 리요떼에게 보낸 전문에서, 그에 대한 정부의 신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프랑스군의 선전을 고무하였다.⁽⁵⁾ 그러나 리후軍의 공격에 프랑스군이 계속하여 패배하면서 리요떼식 평정 방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그는 리요떼의 총독 및 군사령관 겸직을 해제하고, 신임 군사령관을 임명하였다. 군령권을 넘겨주고 총독직만을 수행하게 되었던 리요떼는 결국 사임과 동시에 모로코를 떠났다.

이어서 수상은 5월 9일의 각료회의에서 전쟁의 책임이 전적으로 Abd el Krim에게 있고, 프랑스는 침략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공격의 희생자”라는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천명하였다.⁽⁶⁾ 물론 이 발표가 있자마자 공산당 기관지는 이 발표가 프랑스 및 세계 여론을 향한 선전에 불과하다면서, Abd el Krim으로서는 프랑스군이 Ouerrha 평야 점령을 계속하는 한, 회교군을 증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모두는 지체없이 리후 공화국과 친화하고 적극 지원”하자고 선동하였다.⁽⁷⁾ 6월 10일 수상 겸 국방장관 Painlevé는 직접 모로코 현지를 답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였다. 이에 신임 군사령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대대적 병력 보강을 결정하고, 스페인과의 협력 및 對 Abd el Krim 정치공작을 시작하였다. 7월 7일에는 모로코軍 총사령부를 신설하고 초대 사령관에 Stanislas Naulin 장군을 임명하였다. 7월 17일에는 Philippe Pétain 원수를 모로코 현지에 파견하여 총독과 군사령관의 임무 조정을 연구시킨 뒤, 8월에 Pétain을 신임 군사령관에 임명한다. 8월이 되면서 모든 전선에서 리후軍의 진출이 중지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정부는 의회의 추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대량의 병력을 즉시 파견하였다. 9월에는 총 병력수 13만 내지 30만명의 증원

(3) *Le Temps*, 24 avril 1925.

(4) *L’Humanité*, 24 avril 1925.

(5) *Le Temps*, 6 mai 1925.

(6) *Le Temps*, 10 mai 1925.

(7) *L’Humanité*, 12 mai 1925.

(8) 시기와 정보 출처에 따라 이 수는 3배나 증가되기도 한다. 1956년 6월 1일 의회 발언에서 당시 외무장관 Christian Pineau는 1926년에 리후 전쟁을 끝내

부대가 모두 도착하였다.⁽⁸⁾ 이와 동시에 스페인군도 증원되어 10만명이 되었다. 리후軍은 6천 내지 8만명이었다(Roger-Mathieu, 1927: 142). Pétain은 Abd el Krim의 본거지인 Beni Ouriaghel을 스페인 군과 합동 하에 협공하였다. 9월 28일, 72세의 리요떼는 총독을 사임하였다. 이로써 초대 모로코 총독 리요떼(Louis Hubert Gonzalve Lyautey) 원수는 장기간의 모로코 근무를 마치게 되었다.

10월 27일에는 리요떼 후임으로 Théodor Steeg이 부임하고 부임과 동시에 對리후 평화협상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 협상의 기본 원칙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으로 Abd el Krim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으나, Abd el Krim은 스페인을 제외하고 오직 프랑스하고만 협상할 것을 고집하였다. 결국 그는 1926년 2월에야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 끝에 5월 27일에 항복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관용”(Roger-Mathieu, 1927: 215)을 요청하면서 프랑스측에 귀순하였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제1단계(1925년 6-7월)에 리후인들의 저항에 관한 제반 사항에 합의하고, 다음 단계(1926년 2월)에 실제 군사협력과 평화협상 방법에 합의하였다. 양국간의 첫 협정인 “마드리드 회의”(1925. 6)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국회의 휴회 기간에 이루어졌고, 국회의 인준을 거치기 전에 조인됨으로써,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외상 Briand은 양국간의 협약이 “명예스럽고 장기적인 평화유지 목적”에 있음을 밝혔다.⁽⁹⁾ Painlevé 수상은 “이 협약은 우리의 행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⁰⁾ 그리고 만약 이와는 달리 Abd el Krim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는 “우리가 모로코는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전체에서 철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알제리의 우리 縣인 Oran으로 가는 길을 회교군에게 열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¹¹⁾ 결국 이 협약 체결은 여당과 우파의 인정을 받았지만, 공산당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이 협약의 적법성을 부인하였다. 또한 이 협정이 무력 침공 협약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우려한 양국 정부는 이 협약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동 협정에 규정된 양국의 군사협력 부분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공개를 거

기 위해 325,000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이 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Cf. *J.O. (A.N.)*, du 2. juin 1956, p. 2235(*J.O. : Journal Officiel* 프랑스 관보: *A.N. : Assemblée Nationale* 국회).

(9) *J.O. (D.P.-Ch.)* du 24 juin 1925 (S. du 23 juin), p. 2781(*D.P. : Débat parlementaire*의회 토의: *Ch: Chambre* 하원: *S: Séance* 회의).

(10) *J.O. (D.P.-Senat)* du 3 juillet (S. du 2 juillet), p. 1269(*Sénats*: 상원).

(11) *J.O. (D.P.-Ch.)* du 24 juin 1925 (S. du 23 juin).

부하였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일방이 되어 진행된 對리후 협상은 쌍방이 모두 상대방의 협상 의지의 진지함을 의심하는 가운데 1925년 7월과 12월 및 1926년 4월의 세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스페인은 1925년 7월 11일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즉시 리후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협상안을 발송하였고, Abd el Krim은 7월과 12월에 자기의 조건을 양국 앞으로 발송하였다. 양측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측이 주장하는 평화 수립 조건을 교환하다가 1926년 4월에야 협상을 개시하였다.

프랑스-스페인 안: ① 포로의 상호 석방. ② 1921년 1월 1일부로 상호 완전 사면. ③ 행정 자치 구역 결정. ④ 동 구역 설정. ⑤ 동 구역의 공공 질서와 안전 담당 경찰의 수 확정. ⑥ 국제 조약. 특히 관세 부문 국제 규정 내에서 동 구역에서의 상업의 자유 인정 및 보장. ⑦ 무기 및 탄약의 밀수는 계속 금지. ⑧ 교전 종식 직후에 스페인이 점령할 해안지역 지정.

Abd el Krim 안: ①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아프가니스탄과 유사한 자격으로 리후 국가를 인정하고, 리후 지사에게 태수(Emir) 칭호를 부여할 것. ② 리후 국가는 모로코 술탄을 동 국의 신앙의 지도자(Amiral-Mouminin)으로 인정하고 설교시에 그의 이름을 읽는다. ③ 남방 경계선은 Ouerrha강 이북으로 하고, Larache, Arzilla, Tetouan을 포함한 Djeballa 전체를 리후에 포함시킨다. ④ 스페인은 Ceuta와 Melilla 및 내륙 또는 바다로부터 올 공격에서 이 도시들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주변 지역을 보유한다. 현재 채광 중인 Oro 철광(Melilla 남방 15 km)을 스페인이 계속 보유한다. ⑤ 리후국은 상비군을 보유하는데, 병력수는 전문가들이 정한다. 무기를 반납하는대로 병력을 감축하고, 이때 병력에 비해 남는 잉여 무기는 리후국이 보유한다. ⑥ 모로코의 프랑스 보호령에서 일체의汎이슬람 선전 완전 중지. ⑦ 보상금 없음. ⑧ 국제 연맹은 리후 정부가 확립되기 위한 또 독립 국가를 구성하여 최초 1년을 견딜 수 있는 약간의 여신을 할 것. ⑨ (스페인과 프랑스의 참여하에) 리후의 경제 발전.

그러나 Abd el Krim의 이 조건들은 행정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위의 양국 제안 제3항과 상치되어서 두 歐洲 강국은 자동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Abd el Krim은 수차에 걸쳐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와 직접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1926년 4월 26일부터 시작된 Oujida 회담에서 결국 프랑스군에 투항하였다.

2. 리후 전쟁과 프랑스의 여론 및 국회

20세기 초부터, 모로코는 프랑스 “우파와 좌파간의 불화의 씨앗이었으며,

이데올로기투쟁 거리”였으나(Montagne, 1953: 12), 리후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프랑스가 신탁통치 중인 시리아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발발한 리후 전쟁은, 평화 회복을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좌파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였다. “전에 없던 격렬한 논조로 신문, 잡지가 정부의 모로코 정책을 공격”하고(Montagne, 1953: 11), 여당인 좌파연합 내에서도 사회당이 결국對정부 태도를 바꾸었다. 야당에서는 공산당이 물론 대대적인對정부 공격을 하였고, 반면 우파는 오히려 내각을 지원하였다. 정부를 도움으로써 우파는 좌파연합의 와해를 부추기기도 한 것 이었다.

여야의 각 정당, 상-하원의 국회 의원들, 사회-종교계의 각 단체, 각 언론 기관 등이 제각기 문제점을 들고 나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주장하였다. 토론은 주로 의회 내에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활발하게 벌어졌다. 한 가지 특기 할 것은 국회 의원들 중에 신문사의 정치부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Léon Daudet(*l' Action française* 극우파), Léon Baréty (*l' Afrique française* 우파), Paul Faure(*le Populaire de Paris* 좌파), Marcel Cachin(*l' Humanité* 공산당). 즉, “국회의원들과 언론이 긴밀하게 밀착”(Miquel, 1972: 23)되어 있었다. 한 식민지 전쟁을 둘러싼, 당시 프랑스의 여론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① 리후 전쟁 발생의 책임 소재, ② Abd el Krim이 일으킨 사태의 정확한 의의, ③ 리후 문제의 해결책.

위의 세번째인 리후 문제 해결책 역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대두되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이를 순서대로 보면 대개 우파, 사회당, 공산당 등의 주장 이었다.

- ① Abd el Krim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란요소를 근원적으로 없앨 것.
- ② 프랑스군의 대거 투입을 포기하고, 리후인들과 평화 협상을 할 것.
- ③ “리후 공화국”을 인정함과 동시에, 對리후 군사 작전을 즉각 중지하고, 아예 모로코에서 철수할 것.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회 내에서 여당인 사회당은 내각의 모로코 정책을 초기에는 조건부로 지원하다가 다음에는 공개적 반대로 선회함으로써,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좌파연합은 단합될 수가 없었다. 공산당의 반대는 이미 언급했던 바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 다행이었던 것은 이런 의회의 반대가 내각 책임 하에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조치는 당시 의회가 하계 휴회 중이던 1925년 7월 13일-10월 28일 사이에 취해졌다. 또한 비록 사회당이 이탈했어도 우파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정책 집행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른바 좌파연합 절대다수가 집결 절대다수로 변환한 것이다.

사회당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게 된 이유는 리후 문제도 있었으나, 자본에 대한 조세를 비롯한 재정 정책에서 오는 이견도 있었다. 1925년 4월 10일, 상원은 사회당의 동의 하에 급진 사회당의 Herriot 내각을 전복시켰다. 이후의 Painlevé, Briand 내각은 사회당과 온건 좌파의 표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좌파 고유의 재정 정책을 실현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1925년 4월-1926년 6월 기간에 네번이나 내각이 경질되었다. 제1차 Painlevé 내각 수립 후 첫 의회에서 모로코 사건이 의제로 상정(1925·5·28)되면서, 사회당 일부는 對 정부지원을 주저하기 시작한다. 여당에서 작성한 결의안에 야당인 우파가 찬동하는 바람에, 좌파가 낸 결의안에 우파가 찬성함을 못 마땅하게 여긴 사회당은 투표를 하루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으로서 우파의 동조를 봉쇄하려고 하였다.

나라가 1924년 5월 11일에 이어 1925년 5월 3일 및 10일에 강력히 긍정한 평화 정책에 충실한, 우리의 군과 국제조약으로 우리의 보호하에 있는 영토와 그 부족들의 안전을 보장키로 결심하며, 하나로 뭉친 인류애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체의 정복적 모험적 제국주의에 결연히 반대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 발표를 인정하는 의회는 이 조건들이 갖춰지는 대로, 정부가 그에 맞게끔 모로코에 평화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¹²⁾.....

이와 같은 수정을 통해 우파(Bloc national)의 과거의 정책을 통박함으로써 야당의 찬표를 거부하려던 사회당의 의도와는 달리, 5월 29일, 의회는 동 수정안을 찬성 537표, 반대 29표로 압도적으로 결의하였다. 사회당의 바램과는 달리 우파가 역시 협조하였다.

여당에서 이 결의안을 제출하던 날, 공산당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의회는 정부에게 다음을 건의한다. ① 휴전을 명령함으로서, 모로코에서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리후와 평화 협상을 할 것. ② 이를 위해, 협상을 준비할 위원회를 조직할 것. 이 위원회에 C.G.T.와 C.G.T.U. 노조 대표를 포함시킬 것(25). ③ 또한, 1911년 6월 16일 하원 회의에서 Jean Jaurès가 요구한 대로, 모로코의 완전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존중하고, 모로코의 무력 점거를 중지할 것.

(12) 5월 3일과 10일은 지방의회 선거일이었다. 고딕체 부분이 수정안이다. 첫째 것은 추가 삽입된 부분이고, 둘째의 원안은 “일체의 정복 의사에 철저히 반대하는”이다.

리후 문제가 프랑스의 정치계에 파문을 던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프랑스가 관련된 13개월 동안에(하계 휴회 기간을 고려한다 해도) 하원에서는 6회의 토의가 있었고, 상원에서는 국방-외무 분과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전체 회의는 오직 한 번 있었다. 1925년 7월에 Painlevé 내각을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것이었다.

국회 의원들의 토의보다는 중요성이 덜 하지만 당시의 지방 의회에서도 리후 문제가 토의되었다. 리후 전쟁의 발발 당시 수상이었던 하원의장 Herriot 이 의장으로 있던 리옹(Lyon) 시의회는 사회당의 결의문을 의결하여 식민지 확장에 반대하였다. 그런가하면 수도권의 Seine縣 의회는 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모로코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지원하던 사회당은 식민지 경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다만 무력에 의한 강점에만 반발한다. 제2인터내셔널 (International)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은 1926년 초부터 의회의 모든 표결에서 정부案에 거의 반대한다. 1925년 말에는 Abd el Krim을 받아들여, 리후문제를 해결코자 국제연맹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프랑스 정부나 국제연맹으로부터 아무런 회답도 못 받았다.

공산당은 International communist의 감시 및 지원하에 1924년 여름부터 리후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反군국주의 反제국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계시키는 독창적인 착상을 보여주었다. 청년 공산당원 및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모로코전쟁 반대 행동대를 조직하여 각종 가두시위, 선전물 배포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스페인 공산당과 협력하여 양국의 청년 공산당이 양국에서 反戰·反植民地 운동을 극대화하였다. 1925년 8월, 국회의원 Jacques Doriot 등 중앙 행동대 일부를 직접 모로코로 파견하였으나 프랑스 총독부의 저지로 입국에 실패하고 겨우 인근의 Oran(알제리) 만을 방문하였다. 공산당의 대 식민지민족 지원운동의 일환인 이 방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프랑스 내의 아랍 노동자, 군인, 인텔리겐차, 심지어는 사회당원들에게도 접근하여 反戰-反植民地 운동을 계속 한다. 듀베르제(Duverger, 1969: 231)의 말대로 “이들은 문자 그대로 혼란 조성을 전문으로하는 선동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bd el Krim이 영도하는 북부 모로코의 리후인들은 前期 리후 전쟁에서 스페인에게 예상외의 대성공을 거두고 스페인의 보호령 내에 독립국가를 건설하였다. 歐洲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로코 현지에서도 스페인의 이웃인 프랑스는 북부 모로코에서 스페인이 고전할 때, 남쪽의 프랑스 총독부나 프랑스 정부는 무관심하였다.

제도 개혁과 동시에 현대식 정부를 구성한 뒤, 리후의 태수는 서구식의 국가 건설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의 방해로 팔목할만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 채 리후國은 사라졌다. Abd el Krim은 우선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일방으로는 스페인과 화평협상을 하면서, 프랑스 총독부와 선린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리요떼 총독의 관망적 무관심은 어쩌면 스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자칫하다가 그들과 함께 물에 빠질까 보아서였는지도, 혹은 고의적으로 리후의 지도자를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여하간에 1924년부터 리후에 대한 태도를 바꾼 리요떼는 前期 리후 전쟁 말기에, 프랑스 보호령 북부에서 유일하게 단 1회의 대작전을 단행하였는데 이 북진이 後期 리후 전쟁을 일으키고, 후에 프랑스 여론을 들끓게 하였다. 사회당은 은근히, 공산당은 드러내놓고 이 1925년 춘계 작전을 공격하였다. 이 Ouerrha강 도하 작전은 리후 지도자가 스페인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진행된다. Abd el Krim에게는 이 프랑스군의 북진이 분명한 위협이었다. 1924년부터 프랑스 보호령과는 화평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무력적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對모로코 정책에서 우리는 개념의 차이가 결국은 확고하게 뿐내린 리요떼식 방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 對스페인 협력의 경우, 물론 명분은 리후에 평화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으나, 이 평화는 어디까지나 “식민자”들의 평화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협력의 유일한 의의는 Abd el Krim을 무찌르기 위해 스페인 정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리후 지도자와의 협상은 실제로는 선전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협상은 시작부터 성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프랑스, 특히 스페인 정부의 이 평화 협상은 오직 여론, 특히 좌파 국회의원들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여론은 기실 정부가 리후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Abd el Krim이 일으킨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는 세 가지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다.

- ① 반도들을 완전 소탕하려는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 ② 군사 작전을 중지하고 리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③ “모로코는 모로코인에게”라는 구호처럼 리후 공화국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법.

이와 같이 리후 전쟁 전기에 자기네가 간여되지 않았을 때, 즉 남의 전쟁일

때와는 달리 1925년 봄부터 프랑스 여론은 무관심한 태도를 버렸다.

이 중에서 오직 우파의 역할이 제일 컸다. 정치 이념은 달라도 자기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좌파 정부를 옹호함으로써 프랑스 정치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 즉, 이들이 내각을 지원함으로서, 의회에서 “좌파 연합 절대 다수”가 아니라 “집결 절대 다수”를 탄생시킨 것이다. 우파 여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중도파가 정부로 하여금 모로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리후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별로 크지 못하였다. 각종 국회 위원회가 모로코 전선을 시찰하였으나, 이들은 고작해야 병원을 둘러보았을 뿐, 군 작전에는 간여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의회의 휴회 기간에 취해졌다.

끝으로 좌파 정당의 경우, 사회당은 당론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태도는 변화하였다: 정부 지원, 국방 예산 투표시의 기권, 공산당과 제휴하에 공개적인 對정부 공격. 공산당은 전적으로 리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 번도 자기 주장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1925년 10월에 대파업을 선동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채半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공산당의 항의의 절정이었던 이 파업 이후, 이들의 항의도 수그러지고, 얼마 후에 리후 전쟁은 끝났다.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리후軍은 투철한 전투 정신으로 열진했으나,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며 현대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스페인軍의 공동 승리로 전쟁은 종식되었다. Abd el Krim은 최후까지 기독교인들의 식민지 체제에 대한 이슬람 항쟁의 상징이었다. 이 리후의 지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고찰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V. Abd el Krim과 아랍 민족주의

Abd el Krim의 항복은 동시에 이탈 상태의 종결을 알렸다. 자기네 태수가 유배된 후에도 리후軍의 일부는 계속 스페인인들과 간헐적 전투를 벌였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반란이 끝났다(Woolman, 1969: 214). 프랑스군은 일부 접경지대를 제외하고 리후에서 전원 철수하였다.

Abd el Krim과 아랍 민족주의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이 리후의 태수와 역시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에 항전했던 19세기의 인물 Abd el Kader를 비교한 뒤에, 리후 전쟁의 의의를 일별하고, 이 전쟁이 마그레브를 비롯한 이슬람 세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리후인들이 스페인에게 승리하고 그 직후에 다시 프랑스군을 공격하자 많은

사람들이 Abd el Krim을 1840년대의 Abd el Kader와 비교하였다. 리후 전쟁 발발과 같은 시기에 시리아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자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프랑스 일부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한 세기전에 루이 필립 왕이 Abd el Kader와 협상한 전철을 Abd el Krim과 다시 밟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Abd el Kader와 같이 Abd el Krim도 기독교인에 대항하여 총체적 항쟁을 하였다는 점, 항쟁 초기에 놀라운 승기를 잡았다는 점, 전자가 1831-1845년간 프랑스의 점령에 반기를 들었을 때와 후자가 1921-1926년간 처음에는 스페인과 다음에는 동시에 스페인과 프랑스에 항전할 때에 온 부족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였던 점 등은 두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사실이다. Abd el Kader에게 Djurdjura(알제리) 지역의 Kabyle 부족이 있었듯이, Abd el Krim에게는 리후 지역의 Beni Ouriaghel 부족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모두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봉기에 성공한다. Abd el Kader는 일부 부족들에 의하여 1832년 11월에 “아랍인들의 술탄”이 되었고, Abd el Krim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923년 2월에 “리후 공화국”的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조직 방법과 최종 목표에서 상이하다. Abd el Kader는 종교적 가치를 주로 추구한 반면, Abd el Krim은 종교가 우선은 아니었다. Abd el Kader는 어디까지나 종교에 기반을 두는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려 했고, 이 공동체의 간부들을 모두 성직자 중에서만 선정하였고 재래의 군 지도자들을 외면하였다. 반면에 Abd el Krim은 종교를 위하기보다는 歐洲인들을 제거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Abd el Kader는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으나, Abd el Krim은 오히려 이들이 부족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부정하였다. Raisouli를 체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Abd el Kader에게는 종교가 최종 목표였고, Abd el Krim에게는 이는 오직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리후國의 이름을 “공화국”으로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Abd el Krim은 현대적 국가를 지향하였다.

1830년 이래로 프랑스의 마그레브 점령이 시작되면서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 및 아랍인들에게는 자연발생적으로 聖戰의식이 나타났다. 프랑스의 침투에 반대하여 이들은 우선 이슬람을 생각하였다. 19세기 및 20세기 초까지 자주 나타난 聖戰 지도자들 중에서 지도자로서의 역량, 봉기의 중요성, 북아프리카나 국제적 차원에서 준 영향 등을 감안할 때, 19세기에는 Abd el Kader가, 20세기 초에는 Abd el Krim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이 두 사람은 시대적 차이와 함께 전자는 前근대적이었고, 후자는 현대적 야망과 함께 북아프리카는 물론 전 이슬람 세계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이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기 전에, 서구를 모방한 현대적 국가 건설을 기획한 아랍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다.

Abd el Krim의 명성은 아래의 극히 제한된 예에서도 보이듯이 이슬람 세계는 물론이고 남미에까지 알려졌다. 전 세계의 모슬렘들로부터 수많은 격려 편지가 쇄도했고, Tanger항을 통해 물질적 후원도 도착하였다.

1924년, 스페인 군을 두번째로 패퇴시킨 리후軍의 승리가 알려지자, 회교국 왕들이 가진 이슬람 회의는 이집트에서 영국이 취한 행위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리후의 거사를 찬양함과 동시에 Abd el Krim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또한 모든 식민제국들은 이슬람의 책임을 밝혔다.⁽¹³⁾ 프랑스와 리후의 충돌 직후, 이집트의 민족주의 신문인 *El Liwa-El Akhbar*는 “알제리의 Oran에서 대서양까지의 땅은 이슬람 영웅들의 조국이며, 歐洲인들의 묘지”라면서 리후의 영웅에게 스페인과 평화 협정을 고려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¹⁴⁾

汎이슬람 운동은 아랍 세계 외에도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다. 제1차 대전시에 같은 추축국이었던 관계로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독일과, 공산 세계혁명을 추진한다는 정책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련이 그 예이다. 이汎아랍주의 지원 세력은 리후 전쟁이 끝나기까지 Abd el Krim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1921년 7월에 제1차 리후 전쟁이 발발한 당시에 이미 독일과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3차 International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였다.⁽¹⁵⁾汎이슬람 단체는 다음과 같다: 베를린의 “Inter-islam Union”, 콘스탄티노플(Constatinople)의 “Inter-islam mixt Committee,” Konia의 “Islam Fraternity Committee,” Odessa의 “Moslem Communist Committee.” 이들은 소재지에 따라, 외국부(Auswartiges) 등의 독일 국수주의 단체, 터키 정부, 터키 적십자, Komintern의 Oriental section 등의 지원을 받았다.

Abd el Krim은 1924년 말과 1925년에 위의汎이슬람 단체에使者를 보내 지원을 요청하고, 인도 정부와도 접촉을 시도한 바 있다. 1926년 5월, 카이로에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 회의가, 메카에서는 이슬람 정치 지도자회의가 개최되었다. 5월 13일에 열린 카이로 회의는 모로코 대표로 Moulay Youssef 대신에 Abd el Krim을 초청하였지만 프랑스의 저지로 Abd el Krim은 대표자만 보낼 수 밖에 없었다.

(13) Cf. L'Humanité, 28 décembre 1924.

(14) L'Afrique française, 1925-n° 6, p. 310.

(15) Dépêche secret, 28 juillet 1921, in Archive diplomatique. Maroc-n° 475, p. 122.

이상으로, Ben Barka, Alal-al-Fasi, Ben Bella, Bourguiba 등 후대 20세기의 아랍 독립운동가들의 선구자로서의 Abd el Krim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끝낸다.

참고문헌

- Bonnefous, E.
 n.d. *Histoire politique de la Troisième République*, 2e éd. Paris: P.U.F.
- Célérier, J.
 1948 "L'Union française." *Maroc*, Col. Paris: Berger-Levrault.
- Despois, J.
 1964 "Pays d'Outre-Mer." *L'Afrique du Nord*, Col. 3e éd. Paris: P.U.F.
- Duverger, Maurice.
 1969 *Les Partis politiques*, 7e éd. Paris: A. Colin.
- Hubert-Jacques.
 1927 *L'Aventure rifaine et ses dessous politiques*. Paris: Bossard.
- Miquel, P.
 1972 *La Paix de Versailles et l'opinion publique française*. Paris: Flammarion.
- Montagne, R.
 1953 *Révolution au Maroc*. Paris: France-Empire.
- Roger, J.-Mathieu.
 1927 *Mémoires d'Abd el Krim*. Paris: Librairie des Champs-Elysées.
- Terrasse, H.
 1948-1950 *Histoire du Maroc*. Casablanca: Atlandides.
- Woolman, D.S.
 1969 *Rebels in the Rif: Abd el Krim and the Rif Rebellion*. Stanford and London: Stanford University Press and Oxford University Press.
- Dép che n° 302, Rabat: 13 janv. 1924, in Archives dip.—Maroc n 479, p°. 159, 160.
- Dépêche secret, 28 juillet 1921, in Archive diplomatique. Maroc—n° 475, p. 122.
- J.O. (A.N.), du 2. juin 1956, p. 2235.
- J.O. (D.P.-Ch.) du 24 juin 1925 (S. du 23 juin), p. 2781.
- J.O. (D.P.-Sénat) du 3 juillet (S. du 2 juillet), p. 1269.
- L'Afrique française*, n° 6, 1925.
- L'Humanité*, 12 mai 1925.
- L'Humanité*, 24 avril 1925.
- L'Humanité*, 28 décembre 1924.
- Le Temps*, 10 mai 1925.
- Le Temps*, 24 avril 1925.
- Le Temps*, 6 mai 1925.